

한권으로 보는 중국조선족 백년 시문학 정수

# 중국 코리언 명시정선

《중국코리언명시정선》 편집위원회 편

한 나라 생각

신체호

나는 네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 사이  
칼로 썩 비면  
고우나 고운  
핏덩어리가  
줄줄줄 흘러나려오리라  
한주먹 덩석 그 피를 쥐어  
한 나라 땅에 골고루 뿌려서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하리.

## 중국 코리언 명시정선



우주의 만물은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모두가 상호의 정보를 포함하고있다고 한다. 한방울의 물에도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고 한알의 종자에도 생명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 그러니 모든 물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우주와 그 과정과 역사를 함께하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인간도 끊임 없는 방향에 방향을 계속하는것인가?

그럴진대 인류가 함께하는 그런 방향을 우리는 피할수도 거부할수도 없이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하고 겪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에 우리 민족의 방향은 수난과 함께 그 특이성이 강조되고있다.

《중국코리언명시정선》에는 그런 방향과 수난의 역사(役使)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시대와 시대의 엇갈림에 따라 그런 흔적은 차체 시공간의 락인을 스스로 찍으면서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고있다.

ISBN 978-7-5389-1627-0



9 787538 916270 >

定价: 20.00元

한권으로 보는 중국조선족 백년 시문학 정수

# 중국 코리언 명시정선

《중국코리언명시정선》 편집위원회 편

 현문각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国朝鲜族名诗精选: 朝鲜文/《中国朝鲜族名诗精选》  
编委会编.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8  
ISBN 978-7-5389-1627-0

I. 中… II. 中… III. 朝鲜族—诗歌—作品集—中国—  
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9)第 152090 号

书 名/ 中国朝鲜族名诗精选  
编 者/ 《中国朝鲜族名诗精选》编委会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韩永男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李光吉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880mm×1230mm 1/32  
印 张/ 9.75  
字 数/ 200千字  
版 次/ 2009年9月第1版  
印 次/ 2009年9月第1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627-0(民文)  
定 价/ 20.00元

## 머 리 말

《중국코리언명시정선》이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조선족 시 백년사를 새롭게 느껴보게 하는 하나의 회사이다.

파스칼은 《인간은 가장 빈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이며 인간은 우주의 극히 작고 약한 존재이지만 사고의 힘으로 우주를 소유할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였다. 하기에 인간은 오직 시적경험을 통해서만이 대상과 의식,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 즉자와 대자의 대립을 초월하여 우주 전체와의 화해를 얻음으로써 시적 티베르티스망을 통해 우주적 실존을 획득하게 된다. 이것이 곧 시의 존재리유이다.

하여 우리는 중국코리언 시 백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작된 시들가운데서 2백여수의 시를 묶게 되었다.

그 선택표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시에서 사회의식, 시대성, 관념성은 시 자체의 자기적인 표현에 의해 이미지화됨으로써 예술적가치로 승화된 시를 선택하기에 류의했다.

둘째, 시적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시어와 예술성이 독특, 기발하여 장구한 생명력을 지닐수 있는 시를 선택하기에 류의했다.

셋째, 시에서 특별히 《현대성》이 강하고 종합적 연상수법으로 다원화되어 독자들에게 강한 시밀리(simile)를 줄수 있는 시를 선택 하기에 류의했다.

넷째, 시 자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의해 우주와 인간의 화해, 실존영역을 개척하면서 시적티베르티스망을 형성한 시를 선택하기에 류의했다.

이상의 선택표준에 의해 금번 《중국코리언명시정선》을 묶었음을 밝히는바이다.

그러면서 본 명시집이 중국조선족 시발전애 보다 고무격려의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본 명시집선택애 수준제한으로 미비한 점이 있음을 수궁하면서 독자들의 지적, 비평이 있음으로써 우리 시단을 진흥시키기를 희망하는바이다.

본 명시집출판을 위하여 물심량면으로 보살펴주신 대련일심불고기 음식점 경리 채진규, 박경숙 그 외 박동진 등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올린다.

이 명시집출판을 위하여 애쓰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임직원들에게도 감사를 올린다.

2008년 7월 22일

## 차례

### 해방전편

- |          |                       |
|----------|-----------------------|
| 신채호(申采浩) | 한 나라 생각/3<br>너의것/4    |
| 김근타(金權朶) | 밤/5                   |
| 환 원(桓園)  | 허무러가는 옛집아/6           |
| 김조규(金朝奎) | 延吉驛 가는길/7<br>胡弓/9     |
| 윤동주(尹東柱) | 序詩/11<br>별헤는밤/12      |
| 리 옥(李旭)  | 금붕어/14<br>五月/16       |
| 김달진(金達鎭) | 龍井/17<br>海蘭江/19       |
| 류치환(柳致換) | 怒한 山/20<br>飛燕과 더불어/21 |
| 송철리(宋鐵利) | 故郷/23                 |
| 홍영의(洪永義) | 春夢/26                 |
| 김동식(金銅植) | 탄식/27                 |
| 한해룡(韓海龍) | 龍井行/28                |
| 김추영(金秋瀟) | 알루갈千里길/30             |
| 조학래(趙鶴來) | 彷徨/31                 |
| 손소희(孫素熙) | 어둠속에서/33              |
| 천청송(千靑松) | 닭잡어먹든집/35             |

리수성(李琇聲)	未明의 노래/37
한얼생(한얼生)	孤獨/39
림백호(林白虎)	각씨/42
이 당(夷當)	움/44
김 립(金笠)	아버지世紀/45
신상보(新尙寶)	흑과갓치살갓소/47
남승경(南勝景)	北滿素描/49
채정린(蔡禎麟)	북으로간다/50
리달근(李達根)	自畫像/51
김북원(金北原)	山/52
함형수(咸亨洙)	歸國/53
	나는하나의손바닥우에/54
윤해영(尹海榮)	海蘭江/55
심련수(沈連洙)	人類의 노래/57
장기선(張基善)	창을 열면/59

## 해방후편

강효삼	님의 눈빛/63
	북방의 8월/64
	아버지의 초상화/66
김경석	숯불/68
김경희	물소리가 들리고/69
	첫눈/70
김동진	안개의 강/71
	강물의 비애/72
김동호	저금소/73
	세월의 평마루/74
김룡운	비 내리던 날의 사색/76
김문세	도시/78

- 김문희 나는 매돌인가/79  
움/80
- 김성우 지리산 쌍계사로 가는 길/81  
십오야 바다/82  
락엽이야기·추억/83
- 김성휘 청제비/84  
바람이 분다/85  
나의 마녀/87
- 김승종 흙속에 묻힌 보리 한알/89  
새벽/90
- 김영건 개미와 락엽과 라체녀인/91  
산이 산을 던고 걸어간다/93  
토실감자와 부자/94
- 김영애 자물쇠/96  
새벽서정/97
- 김영춘 아침. 창가에서/98  
우담화/99
- 김응룡 벽시계/100  
떡갈나무잎/102
- 김응준 나이아가라폭포/103  
초록색 그리움/104  
진달래/105
- 김일량 풀새둥지/106  
가을밤/107
- 김정호 추억/108  
그리움/109  
밤과 달/110
- 김창석 순금/111  
호수가의 달/112
- 김창희 태초의 시간/114  
바다가에서/115

- 김 철    해를 심는 감농군/116  
           대장간 모루우에서/119  
           고향무정/120
- 김철학    기다림/122
- 김철호    새.1/123  
           어느 즐거운 날/124
- 김춘산    무라무라무라/125
- 김태갑    감장눈아 내 사랑아/127
- 김 파    돌의 음악/129  
           발언/130  
           프리즘속에 비긴 풍경.13/131
- 김학송    예감의 새/132  
           예감의 새.1/133  
           예감의 새.2/134
- 김학천    진달래/135  
           고독/136
- 김현순    봄/138  
           존재의 의미/139
- 남영전    달/140  
           우뢰/143  
           나비/145
- 남철심    두 사람/147
- 리근영    구름과는 높이를 다투지 않는다/149  
           고사리/150
- 리금복    쓰러진 소나무/151
- 리명재    모서리/153  
           옥잠화/154
- 리문호    벽계수/155
- 리삼월    봄날의 증명/156  
           산차꽃/157  
           갈대/158

- 이상각 아침/159  
 파도/160  
 송사리/161  
 이성비 겨울까치/162  
 세기의 일출/163  
 밤/164  
 리순옥 족보/165  
 리임원 바람에 길을 물어.../167  
 새벽을 위하여/169  
 꽃의 언어/170  
 리재춘 별의 황혼/172  
 승화/173  
 리 호 둥근달/174  
 리호원 서울의 마지막 야곡/175  
 무(無)의 경지/176  
 리해룡 밤/177  
 기다림/178  
 리홍규 양파의 진실/179  
 새처럼 나무처럼/180  
 림금산 초가/182  
 바다속에 잠긴 땅 사람들/183  
 마송학 산성의 아침/184  
 문창남 수평선 저 멀리/185  
 박규철 이변의 알/187  
 박명순 깡통의 꿈/188  
 박문파 흙을 만나면 청자되리/189  
 박설매 독백의 강/191  
 대숲에서/192  
 박성훈 상강/193  
 초불/194  
 박장길 서예전을 보면서/195

	양걸춤/197
박정웅	고독/198
	추억/199
박철준	등근달/200
박춘월	록/201
	포도주/202
박 화	행복/203
	쪽정이 비망록.19/204
	울타리에 관한 서정별곡/205
석문주	고향의 돌배나무앞에서/206
석 화	작품.39/207
	나의 장례식/208
	그 모습 다 벗고 포도들은 포도주가 된다/209
설 인	사랑의 주검/211
	불덩이 하나/212
	콩/213
송정환	산꽃/214
신현철	소라/215
심명주	미역/217
	폭포/219
심예란	죽보/220
	천국의 열쇠/222
오정목	밤색의 커피/224
윤영애	광고/225
윤청남	풀벌레 울음소리/226
	갈밭에 바람 자면 갈대는 일어서서/227
윤태호	동심의 요람/228
임효원	무제/229
	첫눈에.../230
전광국	설화/231
전춘매	다도/232

- 정몽호 분수령/233  
 아지랑이/235  
 접어둔 날/236
- 정철 팽이/237
- 정호원 봄이 오는 소리/238
- 조광명 계(界)의 슬픔/239  
 홀로 올라라/240
- 조용남 옥을 파간 자리/241  
 황소/242  
 꽃이여/243
- 주룡 문/244  
 수레와 나/245
- 주향숙 반란/247
- 지영호 떠나버린 너/248
- 천애옥 빈잔/249
- 최기자 무제(2)/251  
 종합포도술(1)/253
- 최룡국 아버지의 말씀/254  
 별, 해돋이/255  
 봄바람/256
- 최룡관 고독의 노래/258  
 상관물/260  
 무제/261
- 최문섭 또 하나의 나/262
- 최은희 망황/263
- 최화길 엄마/265
- 한병국 굶주린 녀/266
- 한영남 콩서리/267  
 님의 이름/269
- 한창선 쪽박의 력사/271
- 한춘 주소 없는 편지(30)/273

	풍경/274
	탐구/275
허련화	강너머 마을/276
	무덤에 누운자/277
허룡구	먼동/278
	함성/279
허옥진	메아리/280
	먼지/281
허충남	순간/282
허흥식	달빛 풀어/283
	밤새/284
현규동	남북팀/285
홍군식	361℃ 고독/286
황상박	떡잎/288

## 평론

전경업	방랑의 장벽을 넘어서/289
-----	-----------------

## 해방전편



## 한 나라 생각

신채호

나는 네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 사이  
칼로 썩 비면  
고우나 고운  
핏덩어리가  
줄줄줄 흘러나려오리라  
한주먹 덩석 그 피를 쥐어  
한 나라 땅에 골고루 뿌려서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하리.

주: 이 시는 신채호가 1910년 처음으로 압록강을 건너면서 읊은것이라고 전해지고있다. 시 《한 나라 생각》과 아래의 시 《너의것》은 조선문에 총동맹출판사에서 출판한 《몽과 룡의 대결》에서 선정했음.

작자 신채호(1880-1936): 저명한 독립운동가, 문학가, 역사학자.